

# 월간 실적보고

## 2016.01

### Summary of 2016 Jan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4%** 성장
  - 패키지 **2.1%** / 티켓 **40.5%** YOY 성장
  - 패키지와 티켓 **역대 최다** 월간 송출 (**13.6만명** / **8.5만명**)
2. 지역별 : 일본 **25.1%** , 미주 **3.8%**
  - 일본 **역대 최다** 월간 송출 (**3.7만명**)
  - 미주 **역대 1월 중 최다** 송출

### 1월 : Slow but Steady

**1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14%, 송출인원 22.1만명.** 1월은 YoY 14% 성장. 전년 동월의 기고를 고려하면 양호한 기록입니다. (15년 1월 YoY 43% 성장). 15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된 IS 관련 테러로 인한 여행 불안심리의 영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테러가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테러와 무관한 곳으로의 여행심리마저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패키지 고객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패키지 성장률 2.1%, 송출인원 13.6만.** 15개월 만에 한자리수 성장을 했습니다. 관광수요 위주인 패키지 고객의 여행심리 위축과 전년 동월의 기고(YoY 31%)가 합쳐져 성장이 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최대 월간 송출인원**을 달성했고, ASP는 전년동기 수준과 유사하다는 점이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티켓은 성장률 40.5%, 송출인원 8.5만.**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월간 송출인원** 달성하며, 약 4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1월 티켓성장률 81%의 기고에도 불구하고 성과입니다.

### 1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6	136,469	84,840	221,309
2015	133,695	60,384	194,079
YOY	2.1%	40.5%	14.0%

**패키지 YoY : 11월 25.8% → 12월 22.7% → 16년 1월 2.1%**

**티켓 YoY : 11월 57.2% → 12월 42.7% → 16년 1월 40.5%**

**총송객 YoY : 11월 36.5% → 12월 30.4% → 16년 1월 14.0%**

### 일본 25.1% ↑ 미주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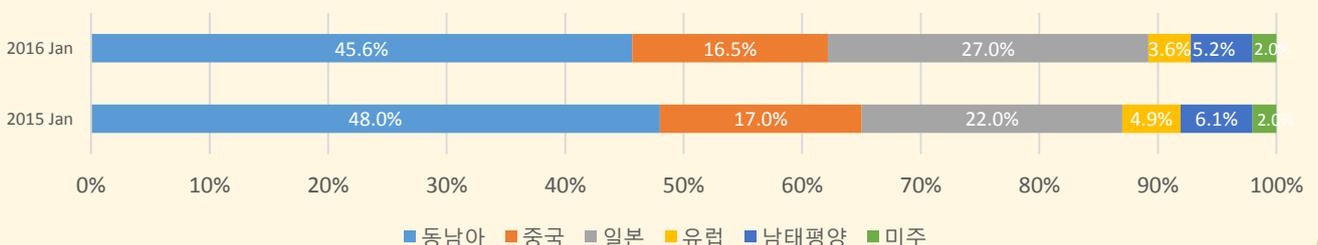
1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25.1%, 미주 3.8%**이며,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45.6%, 일본 27%, 중국 16.5%**입니다.

**일본 25.1%**, 역대 최대 월간 송출인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볼룸과 ASP 모두 전년대비 두자리수 성장하며, 볼룸과 매출 성장에 높은 기여를 했습니다.

**미주 3.9%**, 볼룸은 한자리수 성장을 하였지만, 역대 1월 중 최대 송출 기록을 세웠고, 전 지역 중 ASP가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미주를 제외한 **전지역**의 볼룸은 역성장 했습니다. 각종 악재들로 인해 여행수요가 다소 위축되었고, 여행시점은 다음 달인 2월 설연휴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지역 평균 ASP 하락폭이 한자리로 감소해, 15년과 비교하면 볼룸과 매출 성장 간의 괴리가 줄어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원 비중



###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6년 2월	16년 3월	16년 4월
증감률	22.4%	8.3%	14.1%

\* 2016.1.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16년 2월은 기고임에도 2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2월에도 동일한 길이의 설연휴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2월의 성장성이 좋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년 3월의 예약률은 8.3%로 전년 3월의 기고(15년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 37%)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

16년 1분기는 2월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다소 더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고가 있는 상황으로 볼륨면에서는 한동안 전년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1Q15부터 3Q15까지 평균 15% 이상 하락했던 ASP가 16년에는 낮은 한자리 감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볼륨대비 매출성장성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